

미국 전자업계의 '92년 예산안

'91 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1992년 부시 대통령의 예산안은 전자산업에 좋은 소식이었다.

본 예산안에는 R & D 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포함하여 전자산업의 기초과학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은 전자산업에 호의적인 내용이며 AEA가 1990년에 노력한 몇가지 중요한 사안이 반영되어 있다고 Dick Iverson AEA 사장이 말하였다.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R & D 세액공제의 항구적 연장과 861개의 유리한 할당규정(Allocation Rules)을 1년 연장하는 입법을 요청하였다.

대통령은 또한 '90년 예산안에서 요청한 내용과 동일한 자본이득세 법안(Capital Gains Proposal)을 포함시켰다.

"AEA는 행정부가 계속 자본 이득세 입법문제를 우선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행정부의 이와같은 노력을 지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활동을 고무시키기 위한 조세우대(Tax Incentive) 법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Iverson 사장은 언급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R & D

대통령은 1991년보다 3% 증가한 민간 R &

D 프로그램에 760억달러, 기초과학연구에 130억달러를 요청.

○ NIST 우선사항

미 상무부의 국가 표준·기술기관(NIST)에 1991년보다 15.2% 증가한 2억 1,530만달러를 요청.

AEA는 NIST 전체 자본지원 증가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NIST의 첨단기술프로그램(ATP)에 따라 우월한(Cutting-Edge)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자금의 할당을 희망.

○ Data Superhighway

AEA의 기술개발 능력의 강화요청에 호응하여 슈퍼 컴퓨터 및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 촉진을 위해 부처간 고성능 컴퓨터링 및 컴퓨터통신(HPCC) 계획에 6억 3,800만달러가 요청되었음.

본 예산은 1991년보다 30% 증가한 것임.

AEA는 본 예산안을 지지하고 본 예산안은 행정부의 HPCC 계획 및 계류중인 의회 법안과 일치한다고 언급.

○ DARPA 감소

첨단기술개발연구기구(DARPA)의 자금지원 예산안은 1991년 14억 600만달러에서 1992년 11억 7,000만달러로 20% 감소.

1. 미국,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준비

'91 2월 5일 부시 대통령은 미·캐·멕시코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사를 발표. 1989년 미국은 전자산업에 상당한 잇점을 가져다 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본고는 대미 전자통상사절단 방미시(90.6)와 싱턴에서 한·미 전자업계(EIAK-AEA) 협력회의시 체결한 양협회간 정보 및 자료교환을 위한 업무 협조 약정(MOC)에 따라 미국 전자협회(AEA)가 송부한 U.S. Electronics Review을 분석한 내용임.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고에 의하면, 멕시코와의 FTA로 멕시코로 부터의 전자제품 수입은 대부분의 미국 전자제품 수입이 마킬라도라와 GSP 프로그램에 따라 면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미세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멕시코 수출은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는데, 미국과 멕시코와의 관세차이가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멕시코의 "Buy National" 정책과 로컬 콘텐츠 규정의 철폐로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가 무역협정을 수정없이

승인케 하는 "신속승인" 권한의 2년 연장을 의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FTA와 GATT 다자간 협상의 성공을 위해 신속승인 권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환경문제와 AFL-CIO의 반대외사를 언급하면서 신속승인 권한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1). AEA, 유럽내 활동강화

미국 전자협회(AEA)는 브뤼셀에 소재한 Price Waterhouse EC Service사와의 계약을 통해 EC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1990년 AEA는 미 상무부 지원하에 유럽내

한·미 전자교역 현황

(단위 : 百万\$, %)

		1988	1989	1990	88/89 증가율	89/90 증가율
컴퓨터/ 컴퓨터관련 제품	수출	519	653	624	25.8	-4.4
	수입	1,179	1,357	1,305	16.6	-5.1
	수지	-660	-722	-681		
라디오/TV (가전)	수출	32	35	44	7.5	28.1
	수입	1,439	1,553	1,147	7.9	-26.1
	수지	-1,407	-1,518	-1,103		
통신	수출	163	188	181	14.9	-3.7
	수입	591	482	405	-18.4	-16.0
	수지	-428	-295	-224		
기타 전자기기	수출	143	32	204	-77.8	540.9
	수입	117	129	113	10.1	-16.0
	수지	26	-97	91		
부품	수출	135	219	194	62.0	-11.3
	수입	444	438	445	-1.3	1.7
	수지	-309	-219	-251		
반도체	수출	767	802	1,011	4.4	26.1
	수입	1,396	1,821	1,762	30.4	-3.2
	수지	-629	-1,019	-751		
의료기기	수출	39	40	55	2.8	36.4
	수입	5	7	7	25.9	4.4
	수지	34	33	48		
측정기기	수출	207	287	345	38.7	19.9
	수입	84	45	42	-46.1	-6.0
	수지	124	242	302		
기타	수출	7	8	11	5.6	43.4
	수입	15	12	13	-20.5	9.5
	수지	-7	-4	-2		
계	수출	2,013	2,263	2,668	12.4	17.9
	수입	5,270	5,862	5,239	11.2	-10.6
	수지	-3,257	-3,599	-2,571		

미국 전자활동을 증진키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AEA EC는 월간보고, 속보 및 특별 보고를 통해 미국내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 UR 협상의 종말 보도, 시기상조

업계·언론은 UR 통상협상이 지난 12월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해 왔으나, 불사조처럼 91.2/20 UR 협상이 속개되었다. UR 협상재개는 전자산업에 좋은 소식이다.

미국은 UR 협상을 통해 전세계적인 지적소유권 보호강화, 전자제품의 관세·비관세 장벽 축소, EC의 GATT 정부 조달 협정 가입을 통한 통신시장개방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무역장벽으로서 원산지 규정 즉, 국제규정에 따라 통신, 컴퓨터 및 기타 서비스의 범위 축소와 미국의 시험 및 인증 데이터의 수용증대를 통해 잇점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이해가 걸린 어려운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AEA는 본 UR 협상이 2년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면과제는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협상권한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섬유, 신발업계는 신속승인 권한의 연장을 반대할 것이다.

AEA는 전자교역문제들이 UR에서 적절한 타결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왔으며 UR 협상이 계속되도록 로비활동을 할 것이다.

2. 미국 전자분야 고용인수 감소

미국 전자협회(AEA)에 따르면, 1990년 12월 전자산업 고용인수 1989년 12월의 259만명보다 9만명 적은 250만명이었다.

1990년 12월 전자산업 고용인수는 9월과 대동소이함. 1989년 11월 이후 전자산업은 10만개의 직장기회를 잃었다.

전반적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Prepackaged Software 부문 고용은 1989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10.7% 증가했다.

미국전자산업 고용현황 (單位: 名, %)

	1989. 12	1990. 12	增加率
컴퓨터 사무용기기	464,600	439,200	-5.5
반도체	428,400	239,700	-5.8
기타부품	363,200	345,900	-4.8
소프트웨어	106,800	118,200	10.7
통신기기	266,700	251,100	-5.8
탐구/항해용장비	290,600	274,300	-5.6
기타(측정기기, 의료기기, 가전 등)	849,700	831,600	-2.0
계	2,590,000	2,500,000	-3.5

미국의 전자제품 매출 (單位: 10억달러)

		賣出	신규오더
1989	1/4	143.4	140.4
	2/4	151.5	154.4
	計	294.9	294.8
1990	1/4	149.7	148.2
	2/4	156.4	150.3
	計	306.1	298.5

교역 현황

○ 美國/世界 (單位: 10억달러)

		1989	1990(추정)
컴퓨터	수출	24.9	26.1
	수입	22.4	24.3
	수지	2.5	1.8
가전	수출	1.9	2.7
	수입	12.0	10.6
	수지	-10.1	-7.9
통신	수출	5.2	5.7
	수입	8.4	8.3
	수지	-3.2	-2.6
반도체/부품	수출	17.8	21.4
	수입	20.1	21.3
	수지	-2.3	1.1
측정기기	수출	7.6	7.4
	수입	3.2	3.2
	수지	4.4	4.2
기타 (의료기기, 복사기 포함)	수출	4.6	7.3
	수입	5.5	5.8
	수지	-0.9	1.5
계	수출	62.0	71.6
	수입	71.6	73.5
	수지	-9.6	-1.9

3. 매출 및 신규 오더 1990년 다소 증가

AEA 통계에 의하면 1990년 미국내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과 신규 오더가 증가했다.

1990년 전자제품 매출은 1989년 2,949억달러보다 3.8% 증가한 3,061억달러를 기록했다.

신규 오더 금액은 1989년 2,948억달러보다 1.3% 증가한 2,985억달러를 기록했으며, 1990년 4/4분기 매출은 1989년 781억달러보다 3.3% 증가한 807억달러를 기록했다.

신규 오더 금액은 1989년 4/4분기 812억달러보다 5.3% 감소한 769억달러를 기록했다.

'90. 12월 매출액은 1989년 12월보다 0.4% 감소한 294억달러, 동기간 신규 오더 금액은 9.7% 감소한 279억달러를 기록했다.

4. 미국 전자무역 적자감소

AEA는 1990년 미국의 대 전세계 전자무역 적자는 1989년 96억달러에서 19억달러로 8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일 전자무역 적자는 1989년 202억달러에서 10% 감소한 18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추정치는 1990. 3/4분기의 교역결과에 기초한다.

1990. 1~9월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세계 전자무역 적자는 1989년 동기대비 69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감소했다. 1990년 미국의 수출은 1989년 455억달러에서 15.4% 증가한 525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523억달러에서 537억달러로 증가했다.

'90 電子·電氣工業統計 發行

本會에서는 '90년도의 우리나라 전자·전기공업수급 실적이 수록된 「'90 電子·電氣工業統計」를 발행하였다.

同 책자에는 '89년과 '90년의 품목별 수급실적이 생산, 수출, 수입, 로칼, 내수 등으로 구분되어 우리나라의 전자·전기공업의 볼륨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시장조사는 물론 경영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89~'90 국가별 부문별·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과 '89~'90 주요국가별 품목별·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 등이 수록되었다.

- 판형 : 5·7배판

- 면수 : 483
- 배포 : 본회 자료실 (553-0941/7 교환 : 55)

'90 電子·電氣工業統計

1991. 4.

韓國電子工業振興會